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6



▶한줄요약
난타는 속세의 정을 끊어내려 애쓰지만 매일 손타라와 가족을 그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르나의 깊은 신심을 본 난타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끊어지지 않는 번뇌…수행은 이어지고

뉴델리에서 며칠 ②

2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좋다. 한 번 더 너를 믿어 보겠느니라. 부디 청정행을 닦아 아라한의 경지에 들도록 하여라. 생각해 보아라. 너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그들은 모두가 번뇌를 벗고 아라한의 경지에 들지 않았느냐. 참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이니라. 그들에게도 너 만한 번뇌로 인한 고통이 없었겠느냐. 사내대장부라면 한 번 대들어 봐야지.

난타는 이를 악물었다. 이젠 정말 손타라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대장부로서 아내를 잊지 못해 도망질이나 하는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못났다는 생각에 그는 대답하였다.

-잘 알겠습니다. 붓다시여. 이후로는 딴 마음먹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후 신심을 내어 정말 수행에 임했다. 손타라 생각이 나면 수각으로 뛰어가 물을 뒤집어썼다. 그러다 안 되면 향으로 허벅지를 지졌다. 그래도 안 되면 붓다를 찾으면서 눈을 감고 명상에 들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수행하면서 안 사실이었지만 참으로 붓다는 평등한 인간이었다. 엄청난 수행 속에서 난타는 사색하는 인간을 보았다. 평등한 인간을 보았다. 차별 없는 인간을 보았다. 집착을 놓아버린 인간을 보았다. 신의 경지에 있으면서 결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장 완전한 인간을 보았다. 너무 평등했으므로 그 평등이 처음엔 서러울 때도 있었다. 그래도 자신은 붓다의 아우가 아닌가. 내가 그래도 붓다의 아우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서러웠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의 독생자 라훌라에게 마저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붓다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 수행하느라 발이 얼면 가만히 다가가 그 발에다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 주었다. 그것은 그에게만 가지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입던 분소의를 벗어 주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이웃의 등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난타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손타라가 그리웠다.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타라를 한 번만 안아 보았으면 싶었다. 그럴 때면 붓다가 다가왔다. 그래도 난타는 손타라가 그리웠다. 그리고 가족이 그리웠다. 어느 날 그는 솔직히 붓다에게 가족이 그립다고 말했다. 손타라가 그립다고 말했다. 붓다는 난타의 솔직함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간인 이상 어찌 그들이 그립지 않겠느냐. 나도 한때는 그러했느니라.

미세(微細)한 무명(無明)의 번뇌와 습기(習氣)가 없어지면 그리움은 행복이 된다고 했다. 그래도 난타는 멀리 고국이 있는 산등성이 너머로 눈길을 주곤 하였다. 고향에서 놀던 모습이며 친구들과 어울리던 모습이 떠올라 그리웠다. 손타라가 그리웠다. 그녀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어느 날 난타는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다.

-붓다시여, 그 오랜 수행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붓다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렇다. 나인들 어찌 그들이 그립지 않았겠느냐. 나 역시 피가 끓는 인간인 것을. 사실은 나 역시 출가하고서도 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세월을 헛되이 보내었느니라.

나는 너처럼 나약하게 그리움이란 없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외의 말을 듣자 눈앞으로 하나의 환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아내와 핏덩이를 버리고 설산을 헤매고 사막을 헤매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다.

그래 출가란 게 무엇인가. 세속을 떠나 세상 이치를 궁구한다?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현재 겪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그에게 있어서야. 백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던 사나이. 막상 세속을 버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막막함뿐이었을 것이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사막을 헤매고 설산을 헤매고 그러면서 생로병사의 의문을 붙잡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웃을 일이었다. 왕국을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사랑하는 이를 버리고, 궁을 나가 인생을 구걸하고 있었으니.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번뇌를 떨치고 고요함을 얻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중생을 위해 주먹손을 쥐어 본 적이 없었다. 중생을 위해 자비의 손바닥을 보이며 거리에서 사는 사람. 비 오는 날도 걸식해야 했고 종일 걸식을 해도 베풀어주는 이가 없으면 빈 바리때를 안고 돌아서야 하는 사람. 때로는 심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다. 바리때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언젠가 말했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자신의 출가를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고. 세상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만족을 초월한 곳에 붓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깨달아가면서도 난타는 손타라가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몇 번이고 수도장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참으로 무서운 광경을 보고 말았다. 그것은 목숨을 건 부르나의 신심과 천상과 지옥에 대한 경험이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계세요?

다시 하루를 더 묵어야 하나 아니면 스리나가르로 떠나야 하나 하는 문제를 송 서화가와 의논하느라 읽던 노트를 또 접어야 했다. 숙소를 정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걸 잊고 지내보자고 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칼만 그렸다는 이지안 금어, 아버지가 그렸다는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 아들. 그 칼을 찾아다니는 오오스마 기자, 그리고 심 작가…. 그들을 만나는 사이 그런 칼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차편이 없다고 하니 언제 떠나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가 보았더니 오오스마 기자를 데리고 오마고 하던 심 작가였다. 그 뒤에 오오스마 기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왔군요.

내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았다.

-그러잖아도 전화를 드렸는데…?

송 서화가가 반가움 반 원망 반이 섞인 음성으로 수인사가 끝나자 말했다. 헤어지기가 무섭게 전화했는데 도통 받지를 않았으니 하는 말이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된다고.

뒤늦게야 인사를 하는 오오스마 기자의 어투에 정이 붙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가 안 되니…?

이번에는 내가 조금은 격의가 없어진 음성으로 물었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글은 다 읽었습니까?

-그댄?

송 서화가가 거피를 받으며 나에게 물었다.

-생각이 없습니다. 속도 좋지 않고.

심 작가가 왜 그러느냐는 얼굴로 고개를 쳐다보다가 커피가 뜨거웠던지 후후 불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글 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교단 내에서 전도 잘하기로 소문난 부르나가 파란타로 떠나던 날이었다. 파란타로 떠나기 전 부르나는 붓다에게 청하였다. 부르나가 가려고 하는 파란타는 너무 먼 곳이었고 험한 곳이었으므로 붓다는 그를 말렸는데 부르나는 고집을 부렸다. 그는 파란타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며 붓다의 법을 널리 펴도록 허락해 줄 것을 거듭 청하였다.

-붓다시여, 이제 이곳을 떠나 스나파란타로 가게 해주십시오.

-부르나야, 너의 신심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 네가 그곳으로 가 5백인의 비구를 귀의시켰다고 해도 허락할 수 없다.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성질이 흉악하여 인육을 먹는다고 하니 그 지방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면 어떡하겠느냐?

-붓다이시여,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그만큼 착하구나. 나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으니.

-그럼 주먹으로 때린다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착하구나. 나를 막대기로 때리지는 않으니.

-막대기로 때린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참으로 착하구나. 나를 칼로 베지는 않으니.

-그럼 칼로 베면 어떡하겠느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참으로 착하구나. 나를 칼로 죽이지는 않으니.

-칼로 너를 죽이면 어떡하겠느냐?"

-인생 자체가 고의 연속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도 있고 누군가 자신을 죽여주기를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그렇게 원하는 죽음을 저에게 베풀어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제야 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하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홍법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다만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 한다면 근기에 맞게 법을 펼쳐야 할 것이니라.

부르나는 그 길로 스나파란타로 떠났는데, 대중들은 모두가 부르나의 깊은 신심에 경의를 표했다. 속세에 두고 온 아내를 못 잊어 안달하던 난타에게는 부르나의 신심이 그저 존경스러웠다. 전도를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르나의 결의 앞에 난타는 참으로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난타는 심기일전해 무섭게 수행에 매진했다.

하루는 성 밖에서 걸식하고 돌아오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난타는 그 사람이 천축 최고의 논쟁꾼이라는 것을 몰랐다. 비말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난타를 만나자마자 수행심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난타는 그와 두어 마디 나누어 보지도 못하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거룩한 수행인 난타여, 왜 여기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이제 정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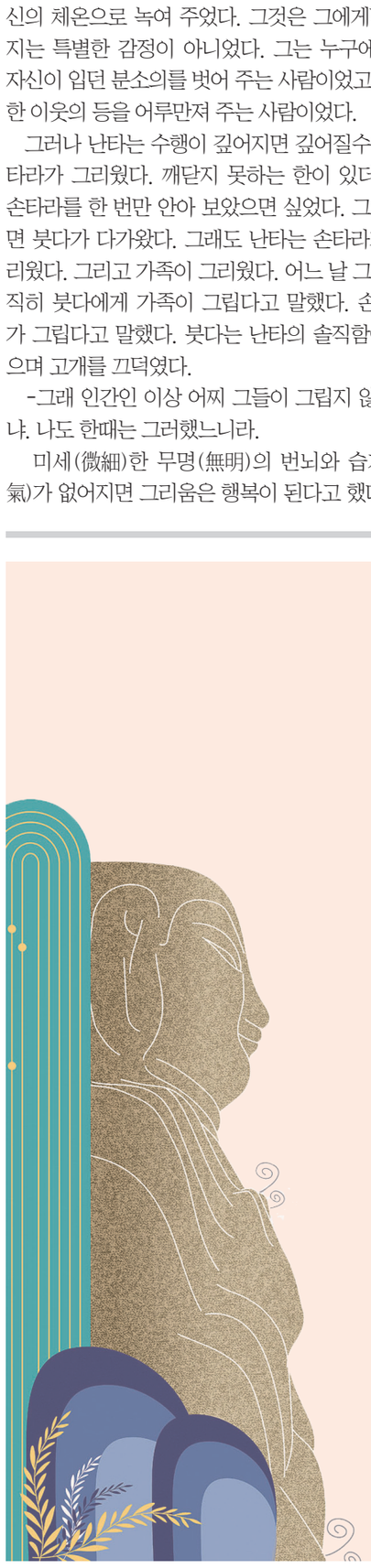
그렇게 대답하자 그의 힐문이 시작됐다.

-난타여, 어찌하여 그곳이 그대의 거처입니까?

-이보시오. 내가 수행하고 있는 정사가 나의 거처가 아니라면 어디가 나의 거처란 말이오? 〈계속〉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제주지사	김용덕		H 010-3697-2441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